Ⅰ.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7년 3/4분기 미국의 성장세는 확대되었으나, 중국, 일본, 유로지역 성장세는 둔화됨

□ 2017년 3/4분기 주요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미국(3.2%)은 전분기대비 상승(0.1%p)하였으나, 중국(1.7%), 일본(2.5%), 유로지역(2.4%)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모두 하락(중국 0.1%p, 일본 0.4%p, 유로지역 0.4%p)함

- ○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 활성화로 상승함
- ○ 중국은 고정자산투자와 수출 증가율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 일본은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 설비 · 주택 · 공공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함

□ 2017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유로지역과 중국은 모두 0.2 상승한 100.5, 99.4를 각각 기록하며 상승세를 나타냄

□ 2017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8%p 상승한 5.2%를 기록함

□ 2017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3.6%를 기록함

□ 국제유가(두바이 52.2달러/배럴, WTI 49.7달러/배럴)는 상승한 반면, 원자재 가격(CRB 상품지수 179.4)은 하락함

□ 2017년 3/4분기 미국의 국채금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금리 동결로 소폭 변화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유로지역 평균 국채금리는 상승함

□ 주요 선진국의 실업률 감소, 견조한 무역규모 증가세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도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2017년 3/4분기 중국, 일본 그리고 유로지역의 세계경제성장률은 하락한 반면, 미국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함

○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의 활성화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2%(연율)를 기록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는 고정자산투자와 수출 둔화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설비 · 주택 · 공공투자 감소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2.5%(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고정자본투자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2.4%(연율)를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1)]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1)]	3.4	3.2	n.a.		n.a.		n.a.		
선진국[1)]	2.2	1.7	1.5		2.1		2.1		n.a.
신흥국[1)]	4.3	4.3	4.2		4.2		5.2		n.a.
미국[2)]	2.9	1.5	0.6	2.2	2.8	1.8	1.2	3.1	3.2
중국[3)]	6.9	6.7	1.3	1.9	1.8	1.7	1.4	1.8	1.7
일본[4)]	1.4	0.9	2.2	1.6	0.9	1.4	1.5	2.9	2.5
유로지역[5)]	2.1	1.8	2.0	1.4	1.7	2.6	2.5	2.8	2.4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이고 연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7.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12)
3) 중국 국가통계국(2017. 12)
4) 일본 내각부(2017. 12)
5) Eurostat(2017. 12)

■ 2017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1]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1을 기록함

○ 미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99.7을,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100.5를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1임

○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4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1]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2]	99.8	99.5	99.4	99.5	99.6	99.7	99.8	99.9	100.1
선진국[3]	100.1	99.6	99.6	99.5	99.6	99.8	99.9	100.0	100.1
미국	100.0	99.2	99.1	99.1	99.1	99.4	99.7	99.7	99.7
유로지역	100.3	99.9	100.1	99.9	99.8	99.9	100.1	100.3	100.5
일본	100.2	99.7	99.7	99.6	99.6	99.8	100.0	100.1	100.1
중국	99.7	99.3	99.3	99.4	99.4	99.3	99.1	99.2	99.4

주: 1) 2007년 1월=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2017년 1/4분기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상승세를 지속, 3/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0.8%p 상승한 5.2%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4.2%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p 상승한 6.8%를 나타냄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1.9	1.5	0.7	1.8	1.2	2.2	3.9	4.4	5.2
선진국	2.7	1.6	1.5	1.5	1.6	1.8	2.2	3.7	4.2
신흥국	0.8	1.2	-0.5	2.1	0.6	2.7	6.4	5.4	6.8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7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3.6%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는 상승, 원자재 가격은 유사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7%를,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하락한 4.9%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3.4, 1.8 상승한 52.2 달러/배럴, 49.7 달러/배럴이고, CRB 상품지수[2)]는 0.1 하락한 179.4를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1)](%)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2)]				
	2016		2017				2016		2017		
	연간	4/4	1/4	2/4	3/4		연간	4/4	1/4	2/4	3/4
세계	3.5	3.6	3.9	3.7	3.6	두바이 현물지수	42.1	48.5	52.7	48.8	52.2
선진국	0.8	1.2	1.9	1.6	1.7	WTI 현물지수	44.5	50.0	52.5	47.9	49.7
신흥국	5.2	5.2	5.3	5.1	4.9	CRB 상품지수[2)]	180.6	188.4	189.9	179.5	179.4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7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 확대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2%를 기록함

○ 민간소비(2.2%)증가율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민간투자(7.3%)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수출(2.1%)과 수입(-0.7%) 증가율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함

□ 2017년 3/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1%)과 소비자신뢰지수(120.3)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0.2%)과 설비가동률(76.2)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8.6)와 경기선행지수(128.6)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실업률(4.3%)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취업자 수(38만 4천 명)는 전분기보다 다소 감소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2.8%)은 소폭 하락함

□ 2017년 9월 FOMC의 정책금리 동결로 3/4분기 국채금리(3년물 1.50%, 10년물 2.24%)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

〈경제성장〉

■ 2017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투자의 활성화로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2%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1%p 하락한 2.2%를 기록함

○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3.4%p 상승하며 7.3%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4%p 하락한 2.1%이고,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2%p 하락한 -0.7%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0.9%p 상승한 0.7%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GDP	2.9	1.5	0.6	2.2	2.8	1.8	1.2	3.1	3.2
민간소비	3.6	2.7	1.8	3.8	2.8	2.9	1.9	3.3	2.2
재화	4.6	3.7	2.1	6.0	3.2	4.7	0.7	5.4	4.5
서비스	3.2	2.3	1.7	2.8	2.7	2.1	2.5	2.3	1.1
민간투자	5.2	-1.6	-4.0	-2.7	2.4	8.5	-1.2	3.9	7.3
설비	2.3	-0.6	-4.0	3.3	3.4	0.2	7.2	6.7	4.7
주택	10.2	5.5	13.4	-4.7	-4.5	7.1	11.1	-7.3	-4.7
수출	0.4	-0.3	-2.6	2.8	6.4	-3.8	7.3	3.5	2.1
수입	5.0	1.3	-0.2	0.4	2.7	8.1	4.3	1.5	-0.7
정부지출	1.4	0.8	1.8	-0.9	0.5	0.2	-0.6	-0.2	0.7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한 수치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12), BEA

〈소비부문〉

■ 2017년 3/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 모두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1.1%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2.2 상승한 120.3를 기록함

■ 2017년 3/4분기 전분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주택가격지수 모두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1%p 증가한 -2.6%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3.7 상승한 202.7을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1] (%)	2.6	3.0	-0.1	1.5	1.0	1.5	1.0	0.3	1.1	0.5	0.8
소비자신뢰지수[2]	98.0	99.8	96.0	94.8	100.7	107.8	117.5	118.1	120.3	126.2	129.5
신규주택착공호수[3](%)	10.6	6.3	2.6	0.4	-0.7	8.6	-0.9	-5.7	-2.6	8.4	3.3
주택가격지수[4]	179.3	188.7	183.2	188.2	191.3	192.0	193.9	199.0	202.7	203.8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Census Bureau;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7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3] 경기선행지수는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0.2%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보다 0.4 하락한 76.2을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2.8 상승한 58.6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1.4 상승한 128.6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 증가율[1](%)	-0.7	-1.2	-0.3	-0.2	0.2	0.2	0.4	1.4	-0.2	1.2	0.2
설비가동률[2]	77.7	76.3	75.8	75.7	75.8	75.8	75.8	76.6	76.2	76.4	76.8
ISM제조업PMI	51.4	51.5	50.0	51.5	51.1	53.3	57.0	55.8	58.6	58.7	58.2
경기선행지수[3]	121.8	123.3	122.4	122.9	123.5	124.2	125.9	127.2	128.6	130.4	130.9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Bloomberg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

■ 2017년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전분기대비 감소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4.3%를 기록하고, 포괄적 실업률은 8.5%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

○ 비농업취업자는 38만 4,000명으로 전분기보다 17만 8,000명이 감소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분기보다 7,000명 증가함

■ 2017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분기와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1.7%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2.8%)과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1.7%)은 모두 0.2%p 하락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1]	5.3	4.9	4.9	4.9	4.9	4.7	4.7	4.4	4.3	4.1	4.1
포괄적 실업률(u-6)[2]	10.4	9.6	9.8	9.7	9.7	9.3	9.2	8.5	8.5	7.9	8.0
비농업취업자 증감[3]	271.3	224.0	58.8	49.3	71.6	44.3	49.8	56.2	38.4	24.4	22.8
실업수당 청구자 수[4]	27.8	26.3	27.2	26.8	25.8	25.3	24.6	24.2	24.9	23.3	24.2
소비자물가 상승률[5]	0.1	1.3	1.1	1.0	1.1	1.8	2.5	1.9	1.9	2.0	2.2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5]	1.8	2.2	2.2	2.2	2.2	2.1	2.2	1.8	1.7	1.8	1.7
생산자물가 상승률[6]	-3.3	-1.0	-1.8	-1.9	-1.3	1.0	3.5	3.0	2.8	2.9	4.3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6]	2.0	1.5	1.6	1.6	1.3	1.6	1.7	1.9	1.7	2.0	2.2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Bloomberg

〈국채금리〉

■ 2017년 9월 FOMC의 정책금리 동결로 3/4분기 국채금리(3년물 1.50%, 10년물 2.24%)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함[4)]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bp 상승한 1.50%,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2bp 하락한 2.24%임

○ 2017년 9월 FOMC는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0월부터 자산축소 계획도 실행할 것이라 발표함

- "경제가 예상대로 진전되면, 경제가 예상에 부합하게 움직일 경우" 등과 같은 전제조건을 삭제하고 10월부터 B/S 정상화를 실행할 예정임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 3년물	1.01	1.00	1.03	0.91	0.84	1.23	1.51	1.46	1.50	1.67	1.80
국채 10년물	2.13	1.84	1.92	1.74	1.56	2.13	2.44	2.26	2.24	2.36	2.35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4) 김윤경, 권도현, 김효진(2017. 9. 21), "[9월 FOMC], 10월 보유자산 축소 개시", 국제금융센터

나. 중국경제

□ 2017년 3/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와 수출 증가율 둔화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를 기록함

□ 2017년 3/4분기 중국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소매판매 증가율(10.3%)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116.0)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 산업생산 증가율(6.3%)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51.8)는 상승함
-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1.6%)과 생산자물가 상승률(6.2%)은 모두 상승함

□ 2017년 3/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또한 전분기대비 하락함

〈경제성장〉

■ 2017년 3/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고정자산투자와 수출 증가율 둔화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를 기록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증가율보다 0.8%p 하락한 7.9%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0%p 하락한 6.6%를 나타냄

- 아세안 수출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둔화됨[5)]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14.3%를 기록함

5) 이상원 · 이치훈(2017. 10. 24), "2017년 3분기 성장률과 전망", 국제금융센터

〈표 10〉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1]	6.9	6.7	1.3	1.9	1.8	1.7	1.4	1.8	1.7
			(6.7)	(6.7)	(6.7)	(6.8)	(6.9)	(6.9)	(6.8)
고정자산투자[2]	11.4	9.0	10.5	9.7	8.1	8.2	8.7	8.7	7.9
수출 증가율[3]	-1.1	-7.6	-11.9	-6.3	-6.9	-5.2	6.9	8.6	6.6
수입 증가율[3]	-14.2	-5.6	-13.9	-6.9	-4.1	2.3	25.2	14.2	14.3

주: 1) 전분기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2017. 10); Bloomberg

〈소비부문〉

■ 2017년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10.3%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1.2 상승한 116.0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관련 지표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1](%)	10.6	10.4	10.5	10.2	10.5	10.6	10.9	10.8	10.3	10.0	10.2
소비자신뢰지수	105.9	104.4	102.8	101.2	105.7	108.1	112.0	114.8	116.0	123.9	121.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생산부문〉

■ 2017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하락, 구매자관리지수는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6.3%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0.4 상승한 51.8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 증가율[1](%)	6.0	6.2	6.8	6.1	6.1	6.1	7.6	6.9	6.3	6.2	6.1
제조업PMI[2]	49.9	51.6	49.5	50.1	50.2	51.4	51.6	51.4	51.8	51.6	51.8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6] 및 물가〉

■ 2017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6%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6.2%)은 철강, 석유가공, 비철금속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0.4%p 상승함[7]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4	2.0	2.1	2.1	1.7	2.2	1.4	1.4	1.6	1.9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5.2	-1.3	-4.8	-2.9	-0.8	3.3	7.4	5.8	6.2	6.9	5.8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6)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7) 자본시장연구원(2017. 12), 『자본시장리뷰 2017년 겨울호』

〈국채금리 및 환율〉

■ 2017년 3/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하락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 또한 전분기대비 하락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0bp 하락한 3.76%, 국채 10년물 금리는 44bp 하락한 4.06%임

○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분기보다 2.86% 하락한 6.671위안/달러로 달러대비 강세를 유지함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3년물	3.28	3.34	3.90	3.34	2.86	3.25	4.16	4.16	3.76	3.82	3.93
국채 10년물	3.50	3.56	3.83	3.68	3.24	3.48	4.25	4.50	4.06	3.95	4.07
위안/달러	6.284	6.644	6.539	6.533	6.667	6.833	6.889	6.862	6.671	6.627	6.623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7년 3/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설비 · 주택 · 공공투자 감소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

□ 2017년 3/4분기 일본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광공업생산 증가율(0.4%)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 소매판매 증가율(-0.1%)은 전분기대비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43.7)는 상승함
- ○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2.4%)은 하락하고,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4.7%)은 상승함
- ○ 실업률(2.8%)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1.52배)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6%)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7년 3/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1%, 10년물 0.05%)는 일본은행(BOJ)의 기존 통화정책 유지 결정으로 전분기와 유사함

〈경제성장〉

■ 2017년 3/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설비 · 주택 · 공공투자 감소로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8)]
-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4%p 하락한 -0.5%를 기록함
- ○ 설비투자 증가율은 1.1%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함
-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3%p 하락한 -1.0%를 기록함
-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7.0%p 하락한 -2.4%를 나타냄
-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1.5%를 기록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3.1%p 하락한 -1.6%를 기록함
-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하여 0.0%를 기록함

8) 손영환(2017. 10. 31), "BOJ: 통화정책 현행 유지 / 물가전망 하향수정", 국제금융센터 참고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1.4	0.9	0.5	0.4	0.2	0.3	0.4	0.7	0.6
			(2.2)	(1.6)	(0.9)	(1.4)	(1.5)	(2.9)	(2.5)
민간소비	0.0	0.1	0.3	-0.2	0.4	0.1	0.4	0.9	-0.5
설비투자	3.4	0.6	-0.3	0.4	-0.2	1.5	0.2	1.2	1.1
주택투자	-1.0	5.6	1.3	2.4	3.0	0.2	0.9	1.3	-1.0
공공투자	-1.7	-0.1	0.2	2.3	0.3	-2.4	0.3	4.6	-2.4
수출	2.9	1.3	-0.1	-0.6	2.1	3.0	1.9	-0.1	1.5
수입	0.8	-1.9	-1.8	-1.3	0.1	1.3	1.3	1.5	-1.6
정부지출	1.5	1.3	1.2	-1.1	0.5	-0.3	0.2	0.2	0.0

주: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7. 12)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3/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7%p 하락한 0.4%를 기록함

■ 2017년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하락하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8%p 하락한 -0.1%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43.7로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수치임

■ 2017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하락하고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3.5%p 하락한 -2.4%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9.4%p 증가한 4.7%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1]	-1.2	-0.2	-0.9	0.2	1.6	1.9	0.2	2.1	0.4	0.5	0.6
소매판매 증가율[2]	-0.4	-0.6	-1.3	0.0	0.5	1.5	-0.2	0.7	-0.1	-0.1	1.9
소비자신뢰지수[3]	41.3	41.7	41.3	41.2	42.1	42.2	43.4	43.4	43.7	44.5	44.9
주택착공호수 증가율[4]	1.9	6.4	5.5	4.9	7.1	7.9	3.2	1.1	-2.4	-4.8	-0.4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5]	4.1	1.7	4.2	-6.4	5.5	0.3	-1.4	-4.7	4.7	-29.9	3.4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 · 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내각부;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7년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9]은 상승함

○ 실업률은 2.8%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0.1%p 하락함

○ 유효구인배율은 1.52배로 전분기대비 높아지며 상승세를 지속함

■ 2017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전분기대비 상승함[10]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2%p 상승한 0.0%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배,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3.4	3.1	3.2	3.2	3.0	3.1	2.9	2.9	2.8	2.8	2.7
유효구인배율[1]	1.20	1.40	1.30	1.35	1.37	1.40	1.44	1.49	1.52	1.55	1.56
소비자물가 상승률[2]	0.8	-0.1	0.0	-0.4	-0.5	0.3	0.3	0.4	0.6	0.2	0.6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2]	1.0	0.3	0.6	0.5	0.2	0.1	-0.1	-0.2	0.0	0.0	0.1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9)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10) 자본시장연구원(2017. 12), 『자본시장리뷰 2017년 겨울호』

〈국채금리〉

■ 2017년 3/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기존 통화정책[11] 유지 결정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 통화정책 수준에 근접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4bp 상승한 -0.11%,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bp 상승한 0.05%임

○ 일본은행(BOJ)은 2017년 10월과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국채 3년물	0.02	-0.20	-0.13	-0.24	-0.24	-0.19	-0.18	-0.15	-0.11	-0.11	-0.15
국채 10년물	0.36	-0.04	0.07	-0.11	-0.12	-0.04	0.08	0.04	0.05	0.07	0.04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1) 단기금리 -0.1%, 장기(10년)금리 0%대로 국채수익률 곡선을 관리하는 정책임

라. 유로지역[12]경제

□ 2017년 3/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

□ 2017년 3/4분기 유로지역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경기체감지수(112.1)는 전분기대비 상승하고, 산업생산 증가율(1.2%)은 전분기와 동일함
- ○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실업률(5.8%)은 전분기와 동일한 북유럽(6.4%)을 제외한 동유럽(5.9%)과 남유럽(15.1%) 국가에서 전분기보다 하락함
- ○ 주요국(1.8%)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북유럽(1.5%)과 동유럽(1.6%)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승, 남유럽(1.3%) 국가에서는 하락함

□ 2017년 3/4분기 유로지역 주요국 평균 국채금리(독일 3년물 -0.57%, 독일 10년물 0.45%, 영국 3년물 0.34%, 영국 10년물 1.18%)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7년 3/4분기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하며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6%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독일은 전분기보다 0.2%p상승한 0.8%, 이탈리아와 영국은 모두 0.1%p 상승한 0.4%를 기록한 반면,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5%, 0.8%를 기록함

- 유로지역의 실업률 개선 및 수출 증가율 상승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함[13]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2%p 감소한 0.3%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하락한 1.5%를 나타냄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1.2%를 기록함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1.1%를 나타냄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2%를 기록함

12)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13) 자본시장연구원(2017. 12), 『자본시장리뷰 2017년 겨울호』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1)]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2.1	1.8	0.5	0.3	0.4	0.6	0.6	0.7	0.6
			(2.0)	(1.4)	(1.7)	(2.6)	(2.5)	(2.8)	(2.4)
민간소비	1.8	2.0	0.7	0.3	0.3	0.5	0.5	0.5	0.3
고정자본투자	3.3	4.5	-0.4	1.9	0.9	1.5	-0.8	2.8	1.5
수출	6.4	3.3	0.4	1.3	0.5	1.6	1.3	1.0	1.2
수입	6.7	4.7	0.4	2.0	0.5	1.8	0.4	1.7	1.1
정부지출	1.3	1.8	0.8	0.3	0.2	0.3	0.2	0.3	0.2

주: 1)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7. 12)

〈소비 및 생산부문〉

■ 2017년 3/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12.1로 전분기대비 2.1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0.5%를 기록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1.5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나 전분기대비 개선되는 모습임

■ 2017년 3/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1.2%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1)]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유로 지역 ESI[2)]	104.2	104.8	103.9	104.2	104.2	106.9	108.0	110.0	112.1	114.1	114.6
소매판매 증가율[3)](%)	2.7	1.5	0.5	0.3	0.5	1.2	0.2	0.9	0.5	-1.1	1.5
소비자신뢰지수[4)]	-6.1	-7.7	-8.2	-7.9	-8.3	-6.5	-5.5	-2.7	-1.5	-1.1	0.0
산업생산 증가율[5)](%)	2.1	1.5	0.9	-0.1	0.3	1.0	0.1	1.2	1.2	0.4	1.0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Bloomberg

〈고용 및 물가[14]〉

■ 2017년 3/4분기 북유럽지역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분기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5.8%를 기록함

○ 북유럽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4%를 기록하였고 동유럽, 남유럽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각각 0.1%p, 0.2%p 하락한 5.9%. 15.1%로 나타남

■ 2017년 3/4분기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는 전분기대비 상승한 반면 남유럽 국가는 하락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1.8%임

○ 또한, 북유럽과 동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분기보다 0.1%p, 0.3%p 상승한 1.5%, 1.6%이고, 남유럽은 1.3%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0.4%p 하락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5]			
	주요국[1]	북유럽[2]	동유럽[3]	남유럽[4]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7년 1/4	6.0	6.5	6.1	15.6	1.8	1.6	1.6	1.7
2017년 2/4	5.9	6.4	6.0	15.3	1.8	1.4	1.3	1.7
2017년 3/4	5.8	6.4	5.9	15.1	1.8	1.5	1.6	1.3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2)

14)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독일	실질 GDP	1.7	1.9	0.6	0.5	0.3	0.4	0.9	0.6	0.8
	민간소비	1.7	2.1	0.6	0.2	0.4	0.6	0.8	0.9	-0.1
	고정자본투자	1.5	3.1	1.1	-2.2	2.6	1.8	-1.2	2.8	2.4
	수출	5.2	2.6	1.0	1.3	-0.2	1.3	1.7	1.0	1.7
	수입	5.6	3.9	1.7	-0.2	0.7	2.5	0.4	2.4	0.9
프랑스	실질 GDP	1.1	1.2	0.6	-0.1	0.1	0.6	0.5	0.6	0.5
	민간소비	1.4	2.2	1.3	0.4	-0.2	0.7	0.1	0.3	0.6
	고정자본투자	1.0	2.8	-0.9	-2.5	3.3	-0.1	4.2	-1.0	2.9
	수출	4.3	1.8	0.5	-0.2	0.8	1.3	-0.7	2.2	1.1
	수입	5.7	4.2	0.5	-1.0	2.6	0.9	1.2	0.3	2.8
이탈리아	실질 GDP	1.0	0.9	0.3	0.1	0.2	0.4	0.5	0.3	0.4
	민간소비	2.0	1.5	0.3	0.2	0.3	0.2	0.7	0.2	0.3
	고정자본투자	1.9	2.8	0.1	0.2	-0.2	1.8	-1.8	3.5	-0.1
	수출	4.4	2.4	-0.7	1.7	0.9	1.9	1.8	0.1	1.6
	수입	6.7	3.1	-0.5	1.8	0.8	2.5	0.7	1.6	1.2
스페인	실질 GDP	3.4	3.3	0.7	0.8	0.7	0.7	0.8	0.9	0.8
	민간소비	3.0	3.0	1.0	0.6	0.8	0.4	0.6	0.7	0.7
	고정자본투자	6.5	3.3	-0.2	1.5	-0.8	1.2	2.3	0.5	1.5
	수출	4.2	4.8	1.4	2.1	-0.5	1.5	3.2	0.1	0.0
	수입	5.9	2.7	0.8	1.9	-1.7	0.6	4.1	-0.7	0.0
영국	실질 GDP	2.3	1.8	0.2	0.5	0.4	0.6	0.3	0.3	0.4
	민간소비	2.6	2.8	0.7	0.9	0.5	0.4	0.3	0.2	0.6
	고정자본투자	2.8	1.3	-1.4	-3.9	8.1	-8.4	2.6	-1.8	3.0
	수출	5.0	1.1	-2.4	2.5	-1.9	5.4	-0.3	1.7	-0.7
	수입	5.1	4.3	-0.1	0.8	3.0	-0.7	1.0	0.2	1.1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12)

〈국채금리〉

■ 2017년 3/4분기 유로지역 평균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0bp 상승한 -0.57%,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4bp 상승한 0.45%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3bp 상승한 0.34%,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2bp 상승한 1.18%임

○ ECB는 경기 회복세를 배경으로 2018년 테이퍼링 로드맵을 결정함[15)]

- 2018년부터 테이퍼링을 위한 자산매입 규모를 월 300억 유로로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경기 전망과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규모와 기간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함[16)]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6				2017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독일국채 3년물	-0.20	-0.58	-0.44	-0.53	-0.66	-0.68	-0.71	-0.67	-0.57	-0.62	-0.65
독일국채 10년물	0.53	0.14	0.32	0.12	-0.07	0.19	0.36	0.31	0.45	0.43	0.37
영국국채 3년물	0.85	0.39	0.60	0.57	0.16	0.23	0.22	0.21	0.34	0.54	0.52
영국국채 10년물	1.82	1.22	1.56	1.37	0.72	1.25	1.28	1.06	1.18	1.35	1.28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15) 김위대(2017. 10. 26), "ECB, '18년 중의 테이퍼링 계획 발표", 국제금융센터
16) 자본시장연구원(2017. 12), 『자본시장리뷰 2017년 겨울호』

2. 국내경제

□ 201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8%, 전분기대비 1.5%를 기록함

○ 민간소비(2.5%) 증가세가 확대되었고, 설비투자(17.0%)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수출(5.0%)이 큰 폭으로 증가함

□ 2017년 3/4분기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개선,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함

○ 설비투자는 IT 업종 투자 지속으로 17.0%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건물 착공면적 감소, SOC 예산 축소 등으로 7.6% 증가에 그침

○ 산업생산의 경우 수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업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광공업 생산(3.6%)과 서비스업 생산(3.2%)이 모두 증가함

○ 총취업자 수는 추경집행,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세 둔화, 건설업 고용 조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1.3%,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5%를 기록함

○ 소비자물가는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급등,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2.8 상승한 109.6을 기록함

○ 수출은 신흥시장 경기회복, 반도체 등 주력품목 단가 상승 및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4.0%(1,511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자본재를 중심으로 17.9%(1,208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0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은 0.2% 감소함

□ 2017년 3/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1.7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 2017년 3/4분기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이로 인한 설비투자 증가, 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세 확대 등 내수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 변동, 원화강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가. 경제성장

■ 2017년 3/4분기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한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로는 1.5% 증가함[17)]

○ 민간소비는 승용차, 휴대폰 등 내구재 중심으로 2.5% 증가함(〈표 25〉 참조)

○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17.0% 증가함(〈표 26〉 참조)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중심으로 7.6% 증가함(〈표 26〉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3.2% 증가함

○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5.0%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유, 기계류 중심으로 8.5% 증가함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3.2 (0.7)	2.8	2.9 (0.5)	3.4 (0.9)	2.6 (0.5)	2.4 (0.5)	2.8	2.9 (1.1)	2.7 (0.6)	3.8 (1.5)
민간소비	3.4	2.2	2.3	3.5	2.7	1.5	2.5	2.0	2.3	2.5
설비투자	3.1	4.7	-4.6	-2.9	-3.9	2.0	-2.3	14.4	17.2	17.0
건설투자	9.6	6.6	9.0	10.6	11.2	11.6	10.7	11.3	8.0	7.6
지식생산물투자	2.3	1.8	1.0	2.7	2.7	2.6	2.3	2.7	2.6	3.2
수출	1.7	-0.1	1.3	2.6	3.4	1.2	2.1	3.9	0.0	5.0
수입	5.0	2.1	3.4	4.8	6.5	3.3	4.5	9.9	6.4	8.5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7)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12. 1), “2017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7년 3/4분기 소매판매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하였고, 10월에는 장기연휴[18]를 앞둔 전월의 선수요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6.5% 증가함

○ 물가상승세 확대에 따른 실질소득개선 미흡(〈표 32〉 참조), 금리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이 소비 증가를 제약하고 있지만 양호한 소비심리(〈표 29〉 참조), 정부의 소비 및 경제활성화 정책 및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으로 소매판매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19]

○ 2017년 3/4분기 내구재 판매는 지난해 6월 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20]로 인한 승용차 판매 증가(16.1%)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함

- 10월에는 장기연휴를 앞둔 선수요 및 추석이동에 따른 기저효과, 11월 휴대폰 신제품 대기 수요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함[21]
- 11월에는 승용차 및 휴대폰이 신제품 출시 및 프로모션 등으로 판매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함[22]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함

-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이른 추위에 따른 동절기 의복 수요 증가로 4.5% 증가함[23]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함

-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7%, 3.6% 증가함

18) 10월 2일: 대체공휴일, 10월 3~5일: 추석연휴, 10월 6일: 대체공휴일, 10월 9일: 한글날
19) 한국은행(2017. 10), 『경제전망보고서』
20)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2016년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2016년 7월(-11.6%)과 8월(-5.8%) 승용차 판매가 부진하였음
2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1. 30), "'17.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28), "'17.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28), "'17.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표 25〉 소비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2)]	10월[2)]	11월[2)]
민간소비	3.5	2.7	1.5	2.5	2.0	2.3	2.5		
소매판매	5.9	3.5	2.5	4.3	1.9	1.7	4.3	-0.2	6.5
내구재	11.1	1.1	0.1	4.5	3.1	4.4	12.6	-1.9	12.7
* 승용차	16.5	-9.8	-3.6	2.5	2.6	-5.3	16.1	-11.2	6.6
준내구재	4.4	3.5	0.4	2.5	-1.4	-2.1	-0.5	-4.0	4.5
비내구재	3.9	4.9	5.0	4.8	2.6	1.6	1.5	2.7	3.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3/4분기 설비투자는 수출 확대로 인한 반도체 부문 투자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7.0% 증가함

○ 2017년 3/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가 반도체 제조장비 확충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운송장비는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의 기저효과가 소멸되어 증가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6% 상승함[24)]

- 10월 설비투자지수는 추석 장기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3.8% 하락함
- 11월 설비투자지수는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증가 등 기계류 투자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6.3% 상승함

○ 2017년 3/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25)]는 반도체 부문 투자 확대 영향으로[26)] 전년동기대비 31.8% 증가함

- 10월 국내기계수주는 공공운수업 등 공공부문 및 전자 · 영상 · 음향 · 통신업 등 민간부문 모두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0.2% 증가함[27)]
- 11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자 · 영상 · 음향 · 통신업 등 민간부문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0.6% 증가함[28)]

24) 한국개발연구원(2017. 12), "KDI 경제전망"
25)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26) 최근 국내기계수주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전반의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높지 않음(한국개발연구원(2017. 12), "KDI 경제전망"); 제조업 평균가동률: ('16.4/4) 72.4, ('17.1/4) 72.8, (2/4) 71.5, (3/4) 72.4(통계청)
27) 통계청 보도자료(2017. 11. 30), "2017년 10월 산업활동동향"

〈표 26〉 투자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2]	10월[2]	11월[2]
설비투자	-2.9	-3.9	2.0	-2.3	14.4	17.2	17.0		
설비투자지수	0.6	-4.7	5.9	-1.3	18.1	17.7	20.6	-3.8	6.3
기계류	-7.6	0.4	12.0	-2.2	24.5	34.4	25.5	-0.7	11.7
운송장비	20.9	-15.7	-6.1	0.9	2.5	-13.5	8.4	-11.5	-5.6
국내기계수주[3]	-3.0	3.3	16.0	3.8	29.0	28.5	31.8	30.2	20.6
건설투자	10.6	11.2	11.6	10.7	11.3	8.0	7.6		
건설기성(불변)	15.8	14.5	17.7	15.4	17.9	13.6	13.4	-1.8	-1.0
건축	27.1	23.2	28.8	25.7	26.8	22.9	22.6	5.1	6.3
토목	-3.2	-2.3	-1.9	-2.6	-1.0	-7.0	-9.0	-19.5	-19.5
국내건설수주(경상)	-6.7	1.3	26.0	8.4	3.6	16.8	-10.9	-44.3	-16.4
건축	1.7	3.6	39.7	14.5	-5.0	7.9	-8.9	-42.7	-22.9
토목	-32.4	-6.4	-6.8	-9.4	31.0	57.2	-17.9	-50.2	19.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3/4분기 건설투자는 8.2 부동산대책[29] 및 10.24 가계부채 대책[30] 발표와 SOC 예산 축소 및 2016년 하반기 이후 건축착공면적 감소 영향 확대로[31]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며 전년동기대비 7.6% 증가에 그침

○ 건설기성(불변)[32]은 토목(-9.0%) 부문이 SOC 예산집행 감소,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건축(22.6%)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함

- 10월 건설기성은 추석 장기연휴 영향 등으로 건축부문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토목 부문 부진이 심화되어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함[33]

28) 통계청 보도자료(2017. 12. 28), "2017년 11월 산업활동동향"
29) 국토교통부(2017. 8. 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30) 기획재정부(2017. 10.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31) 한국은행(2017. 10), 『경제전망보고서』
32)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33) 한국개발연구원(2017. 12), "KDI 경제동향"

- 11월 건설기성은 최근 주택 건설수주 부진, 토목부문 공사실적 감소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0% 감소함[34]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과 토목의 부진으로 10.9% 감소함

- 10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과 토목 부문 모두 큰 폭으로 감소, 전년동월대비 44.3% 감소함
- 11월 국내건설수주는 도로·교량, 철도·궤도 등 토목 부문이 증가하였으나, 건축 부문 감소세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16.4% 감소함

〈산업생산〉

■ 2017년 3/4분기 산업생산은 수출 증가가 지속된 가운데 조업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 등으로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으나, 10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하였고, 11월에는 1.7% 증가함[35]

○ 2017년 3/4분기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 10월 장기 연휴를 앞둔 조기생산,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함[36]

- 한편, 10월 광공업 생산은 완성차 수출 부진 및 부품의 국내외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1% 감소함[37]
- 11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업체 설비 증설로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함[38]

○ 2017년 3/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민간소비와 관련이 높은 도소매업(3.0%) 증가폭이 확대되고 숙박 및 음식점업(-2.3%) 부진이 완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함

-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장기연휴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4.6%)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내구재 판매 조정으로 인한 도소매업(-3.5%)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부동산 및 임대업(-5.7%) 부진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함[39]
-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주가지수 상승 등으로 금융 및 보험업(10.4%)이 크게 확대되고,

3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28), "'17.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5) 한국개발연구원(2017. 11), "KDI 경제전망"
36) 한국개발연구원(2017. 12), "KDI 경제전망"
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1. 30), "'17.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28), "'17.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3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1. 30), "'17. 10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인한 도소매업(4.1%)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함[40]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2]	10월[2]	11월[2]
전산업 생산[3]	3.2	3.0	3.5	3.0	3.9	2.7	3.9	-2.4	1.7
광공업	0.7	0.5	2.8	1.0	3.7	0.5	3.6	-6.1	-1.6
제조업	0.9	0.6	2.9	1.0	3.8	0.4	3.6	-6.3	-1.8
자동차	-3.5	-10.4	1.8	-2.8	0.4	-1.0	12.9	-16.7	-6.2
ICT	7.0	8.3	4.1	5.0	8.6	-2.2	2.4	5.1	2.0
서비스업	3.5	3.6	2.1	3.0	2.6	2.3	3.2	-0.3	4.1
도매 및 소매업	4.1	2.7	2.2	3.0	1.2	0.4	3.0	-3.5	4.1
운수업	4.1	3.5	-1.5	1.9	-0.3	0.0	2.0	2.2	4.2
숙박 및 음식점업	1.8	1.0	-3.9	-0.5	-4.0	-3.1	-2.3	-4.6	-0.7
금융 및 보험업	4.2	6.5	6.5	5.9	6.9	6.6	5.8	5.0	10.4
부동산 및 임대업	-0.2	3.7	2.3	2.3	5.6	5.7	6.5	-5.7	1.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7년 3/4분기 총취업자 수는 추경집행,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 개선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세 둔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과 기저효과, 건설업 고용 조정 등으로[41] 전년동기대비 1.1%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1.3%, 실업률은 3.5%를 기록함

○ 10월과 11월 총취업자 수는 추경효과 확대 및 제조업 고용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각각 1.0%, 1.0% 증가에 그침[42]

- 2017년 3/4분기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선호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효과[43] 등으로 전년

4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28), "'17.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4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0. 18), "'17. 9월 고용동향"
4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1. 15), "'17. 10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13), "'17. 11월 고용동향"
43) 청년인구 증감(전년동월비, 만 명, 통계청): ('17. 1) -5.1, (2) -5.6, (3) -6.4, (4) -6.8 (5) -7.3 (6) -7.9, (7) -8.3, (8) -8.6, (9) -9, (10) -8.9, (11) -8.9

동기대비 0.5% 감소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전년동월대비 각각 1.3%, 1.0% 감소함

○ 2017년 3/4분기 고용률은 인구감소 효과 등으로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1.3%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61.3%, 61.2%를 기록함

○ 2017년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5%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모두 3.2%를 기록함

- 2017년 3/4분기 청년실업률은 전년동기와 같은 9.3%를 기록하면서 3/4분기 기준 1999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고, 10월과 11월에도 각각 8.6%, 9.2%로 각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함[44)]

■ 2017년 3/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공업의 경우 수출 증가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기상여건 악화,[45)]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됨[46)]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1%, 0.1% 증가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47)]는 수출 호조로 노동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하여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7%, 1.1% 증가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의 경우 잦은 강수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일용직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그 외 기타서비스업도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관광객 감소 효과가 누적되어 1.1% 증가에 그침[48)]

- 10월에는 숙박음식업 등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며 1.1% 증가하였고, 11월의 경우 건설업이 전년동월 기저효과[49)] 등으로 고용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1.0% 증가에 그침[50)]

---

44) 실업자 뿐 아니라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 취업애로계층(잠재적 실업자)을 반영한 청년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017년 6월 23.4%(+1.8%p), 7월 22.6%(+1.0%p), 8월 22.5%(+1.0%p), 9월 21.5%(+0.2%p), 10월 21.7%(+0.6%p), 11월 21.4%(+0.1%p)를 기록함(괄호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45) 2017년 7~8월 중 강우일수는 32.7일로 전년동기의 22일에 비하여 10.7일 증가함

46) 한국은행(2017. 10), 『경제전망보고서』

47) 제조업 포함

4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8. 9), "'17.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9. 13), "'17. 8월 고용동향"

49) 건설업은 경우 '16. 11월을 기점으로 지속된 고용호조의 기저효과가 취업자 증가를 제약함(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13), "'17. 11월 고용동향")

5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1. 15), "'17. 10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13), "'17. 11월 고용동향"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1]	1.1	1.2	1.2	1.2	1.4	1.4	1.1	1.0	1.0
청년취업자[1]	2.1	1.5	0.2	1.2	0.3	0.4	-0.5	-1.3	-1.0
고용률[2]	60.8	61.1	60.7	60.4	59.4	61.2	61.3	61.3	61.2
실업률[3]	3.8	3.6	3.2	3.7	4.3	3.9	3.5	3.2	3.2
청년[4]실업률[3]	10.3	9.3	8.4	9.8	10.8	10.4	9.3	8.6	9.2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5.7	-5.4	-1.0	-4.4	-2.4	0.3	1.7	1.1	0.1
광공업	1.0	-1.5	-2.3	0.0	-2.4	-0.4	0.8	0.7	1.1
제조업	0.8	-1.6	-2.4	-0.1	-2.5	-0.5	0.7	0.6	1.0
SOC[5] 및 기타서비스업	1.7	2.3	2.1	1.8	2.5	1.9	1.1	1.1	1.0
건설업	-1.5	2.1	4.7	1.2	7.6	8.6	4.3	6.3	3.5
도・소매, 음식, 숙박	0.7	1.8	1.4	0.7	2.2	0.9	0.0	0.4	0.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0.2	0.6	0.5	0.7	-0.7	-1.4	-2.1	-1.1	-1.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4	3.3	2.5	2.9	2.8	2.2	2.1	1.3	1.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7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폭염・폭우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 지난해 여름철 전기료 한시인하[51]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52] 전년동기대비 2.3% 상승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8%, 1.3% 상승함

○ 2017년 3/4분기 상품물가는 공업제품이 석유류 가격 상승세 둔화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채소류 작황 부진으로 급등하고, 전기요금이 전년동기 기저효과로 11분기 만에 큰 폭으로 상승 전환함에 따라 2.9% 상승함[53]

- 10월과 11월 중 상품물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하계 전기요금 기저효과 소멸, 도시가스요금 인하[54] 등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5%, 0.5% 상승함[55]

51) 2016년 7~9월 중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18.8%)함
52) 한국은행(2017. 1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53) 한국개발연구원(2017. 12), "KDI 경제전망"
54)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8.7% 인하함

○ 2017년 3/4분기 서비스물가는 공공서비스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개인서비스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1.9% 상승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1.8% 상승함

■ 2017년 3/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8.2 부동산 대책,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적 보복, 북핵 리스크 등에 따른 심리 위축과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2.8 상승한 109.6을 기록함

○ 10월에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전달보다 1.5 상승한 109.2를 기록한데 이어, 11월에는 한 · 중 사드 관련 갈등의 완화 영향 등으로 전달보다 3.1 상승한 112.3을 나타내며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1)]

(단위: %)

구분	210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심리지수[2)]	99.9	101.6	97.3	99.5	94.8	106.8	109.6	109.2	112.3
소비자물가 상승률[3)]	0.8	0.7	1.5	1.0	2.1	1.9	2.3	1.8	1.3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1.0	-1.1	0.7	-0.6	2.0	1.8	2.9	1.5	0.5
농축수산물	1.1	3.1	7.5	3.8	6.1	6.1	8.4	3.0	0.7
공업제품	-0.7	-0.5	0.4	-0.5	2.1	1.3	0.9	1.5	1.4
전기 · 수도 · 가스	-7.0	-13.0	-8.7	-9.2	-6.9	-2.4	8.0	-1.6	-6.7
서비스	2.4	2.2	2.1	2.3	2.1	2.0	1.9	2.0	1.8
집세	1.9	1.8	1.7	1.9	1.7	1.8	1.6	1.5	1.4
공공서비스	1.9	1.0	0.9	1.5	1.0	1.0	1.0	0.9	0.8
개인서비스	2.7	2.8	2.7	2.7	2.7	2.5	2.3	2.7	2.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 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5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1. 1), "2017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12. 1), "2017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대외거래〉

■ 2017년 3/4분기 수출은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회복, 반도체 등 주력 품목 단가 상승 및 수요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4.0%(1,511억 달러) 증가하였으며,[56] 수입은 비중이 큰 원자재 단가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어 17.9% 증가(1,208억 달러)하였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0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경공업제품(15.0%)이 큰 폭으로 증가 전환하고, 식료 및 직접소비재(8.8%), 원료 및 연료(28.6%), 중화학 공업품(24.7%)의 증가세 확대로 인해 사상 최대 분기 수출금액 및 '11년 1분기 이후 최대 분기 증가율을 기록함[57]

- 10월 수출은 조업일수 감소(4.5일)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함
- 11월 수출은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역대 최대 수출실적(496.2억 달러)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9.5% 증가함[58]

○ 수입의 경우, 소비재(16.5%) 증가폭이 확대되고, 자본재(20.5%)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원자재(16.4%)는 증가세가 둔화됨

- 10월 수입은 소비재(-2.0%)가 곡물과 직접소비재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비중이 큰 원자재(13.9%)와 자본재(4.9%) 증가세가 둔화되어 7.9% 증가함[59]
- 11월 수입은 원자재(12.5%)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을 환율 하락이 상쇄하며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소비재(11.4%)와 자본재(13.7%)는 증가폭이 확대되어 12.7% 증가함[60]

5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11), 『2017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57) 13개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고, 이 중 8개 품목의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함. 특히 반도체가 사상 최대 분기 수출 실적(263억 불), 철강(99억 불)은 '11.4분기, 컴퓨터(25억 불)는 '10.4분기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0. 1), "2017년 9월 수출입 동향")
5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2. 1), "2017년 11월 수출입 동향"
59) 한국은행(2017. 12. 5), 『조사통계월보』, 2017년 11월호
60) 한국은행(2017. 12. 12), "2017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5.3	10.9	10.6	8.0	9.5	4.8	8.8	-14.3	10.9
	원료 및 연료	-20.5	-16.0	5.0	-16.4	58.5	15.2	28.6	11.7	35.3
	경공업 제품	-0.8	5.8	1.2	0.2	1.9	-3.9	15.0	-16.1	-1.8
	중화학 공업품	-6.1	-5.0	1.5	-5.7	12.8	18.8	24.7	9.1	8.4
	전체	-6.7	-5.0	1.8	-5.9	14.7	16.7	24.0	7.2	9.5
	금액	1,260.2	1,218.5	1,323.6	4,954.3	1,320.7	1,470.5	1,510.7	449.9	496.2
수입	소비재	3.4	0.5	2.5	1.0	8.0	5.3	16.5	-2.0	11.4
	원자재	-18.6	-8.7	3.8	-12.8	36.1	23.1	16.4	13.9	12.5
	자본재	-3.2	-2.5	5.1	-2.0	16.2	19.4	20.5	4.9	13.7
	전체	-10.1	-5.1	4.1	-6.9	24.0	18.7	17.9	7.9	12.7
	금액	993.0	1,024.6	1,105.9	4,061.9	1,163.5	1,178.8	1,207.7	378.3	419.9
무역수지		267.2	193.9	217.7	892.3	157.2	291.7	303.1	71.6	76.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7년 3/4분기 지역별 수출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주요 지역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됨

○ 수출의 경우, 對아세안(33.5%)이 현지 진출 국내기업들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모바일용 부품 수요 증대로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對중국(15.4%)이 '14.4분기, 對미국(19.5%)이 '15.2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고, 대부분 지역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냄[61]

- 10월 수출은 현지 제조업 경기 호조에 따른 중간재 수출 증가 등으로 對중국(13.5%), 對아세안(17.9%), 對EU(2.6%) 등이 증가하였으나 對미국(-12.4%) 수출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對중동(-34.2%)의 경우 일본, 유럽 등 경쟁사 공격적 마케팅에 따라 자동차 및 선박 수출이 감소함[62]

- 11월 수출은 對중동(-13.3%)이 저유가로 인한 중동 산유국 프로젝트 발주 감소 영향

6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0. 1), "2017년 9월 수출입 동향"
6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1. 1), "2017년 10월 수출입 현황"

으로 감소하였으나, 對중국(20.3%)[63]을 비롯하여 대부분 지역이 모두 증가함[64]

○ 수입의 경우 중국(12.5%), 동남아(20.7%), 중동(21.6%), 미국(20.8%) 등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함

- 10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3.1% 감소하였고, 그 외 지역도 증가세가 둔화됨
- 11월 호주(-1.3%)를 제외하고 중국(14.1%), 동남아(17.8%), EU(14.4%), 일본(10.0%), 미국(11.8%) 등 주요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함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1]	2016			2017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중국	25.1	-8.0	-0.9	-9.3	17.5	7.4	15.4	13.5	20.3
	ASEAN	15.0	-1.1	12.5	-0.4	31.5	27.1	33.5	17.9	13.5
	미국	13.4	-8.8	-3.1	-4.8	-2.1	0.0	19.5	-12.4	11.4
	EU	9.4	-8.4	0.9	-3.1	8.0	35.9	24.0	2.6	2.8
	중동	5.3	-15.9	4.9	-13.8	2.0	-4.7	0.7	-34.2	-13.3
	중남미	5.1	-11.7	-8.3	-17.1	11.6	6.6	23.8	-12.9	5.8
	일본	4.9	3.5	6.1	-4.8	18.6	11.3	8.7	-12.3	10.4
	전체	100.0	-5.0	1.8	-5.9	14.7	16.7	24.0	7.2	9.5
수입	중국	21.4	-3.4	1.2	-3.6	15.6	13.9	12.5	2.9	14.1
	동남아	15.3	0.8	4.7	-1.3	16.6	21.1	20.7	11.4	17.8
	중동	13.3	-12.7	8.4	-21.0	65.6	27.1	21.6	15.6	5.5
	EU	12.8	-10.3	-4.7	-9.3	8.8	4.6	17.8	3.1	14.4
	일본	11.7	11.4	19.6	3.5	25.1	20.9	12.5	4.8	10.0
	미국	10.6	-6.2	5.0	-1.8	19.2	26.0	20.8	-3.1	11.8
	호주	3.7	-13.2	17.4	-7.7	31.7	44.9	32.6	0.1	-1.3
	전체	100.0	-5.1	4.1	-6.9	24.0	18.7	17.9	7.9	12.7

주: 1) 2016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가계소득〉

■ 2017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한 453만 7천 원을 기록하였

63) 중국 내 수요 확대 및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함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2. 1), "2017년 11월 수출입 현황")
6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2. 1), "2017년 11월 수출입 현황"

으며,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함

○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306만 7천 원을 기록함

○ 사업소득은 6.2% 증가한 91만 6천 원, 재산소득은 34.4% 증가한 1만 9천 원을 기록하였으며, 이전소득은 1.0% 증가한 45만 원을 나타냄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1)]

(단위: %, %p, 만 원)

구분		2016				2017		
		2/4	3/4	4/4	연간	1/4	2/4	3/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30.6	444.5	431.2	439.9	459.3	434.7	453.7
	증가율	0.8	0.7	0.2	0.6	0.8	0.9	2.1
	실질 증가율[2)]	0.0	-0.1	-1.2	-0.4	-1.2	-1.0	-0.2
근로소득	금액	286.3	301.9	290.6	294.8	302.2	287.8	306.7
	증가율	1.9	1.9	0.4	1.0	0.0	0.5	1.6
사업소득	금액	85.6	86.2	86.9	85.9	85.6	89.1	91.6
	증가율	0.2	1.1	2.2	1.5	0.9	4.1	6.2
재산소득	금액	1.5	1.4	1.7	1.6	2.2	1.7	1.9
	증가율	-9.8	-31.9	-4.4	-18.4	15.2	12.9	34.4
이전소득	금액	44.7	44.6	42.5	44.7	49.5	44.0	45.0
	증가율	3.8	0.4	2.9	2.1	5.3	-1.6	1.0
처분가능 소득	금액	351.9	360.7	354.1	358.8	-	-	-
	증가율	1.0	0.7	0.4	0.7	-	-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49.4	257.9	246.8	255.0	-	-	-
	증가율	0.0	0.7	-3.2	-0.5	-	-	-
	실질 증가율[2)]	-0.9	-0.1	-4.6	-1.5	-	-	-
흑자액	금액	102.5	102.8	107.3	103.8	-	-	-
	증가율	3.6	0.8	9.7	3.8	-	-	-
평균소비성향[3)]		70.9	71.5	69.7	71.1	-	-	-
흑자율[4)]		29.1	28.5	30.3	28.9	-	-	-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5)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가 분기 주기 공표에서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됨. 단, 가계소득통계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분기 발표함.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이를 기초해 작성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 2017년 3/4분기 경기동향[65]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66]가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1.7을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67]는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건설수주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구인구직비율 등의 하락폭 축소와 코스피지수의 큰 폭 상승 등으로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1.7을 기록함

- 10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등의 하락폭이 확대되어 전월대비 0.3 하락한 101.3을 기록함
- 1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이 상승하였으나 건설수주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대비 0.1 하락한 101.2를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하였으나 수입액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분기와 동일한 100.8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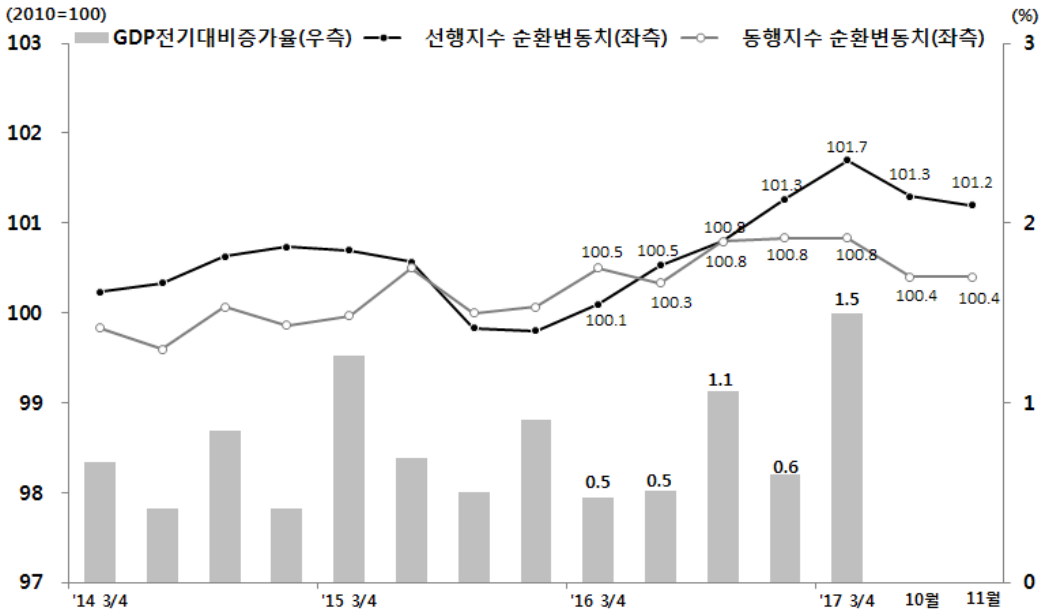
- 10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하락하여 전월대비 0.6 하락한 100.4를 기록함
-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과 동일한 100.4를 기록함

65)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66)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67)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7년 3/4분기,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7년 3/4분기 재고율[68]은 제조업 출하지수 상승(2.1), 재고지수 보합(0.0)으로 전분기대비 2.4%p 하락한 119.6%를 기록함[69]

○ 10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6.9%p 상승한 125.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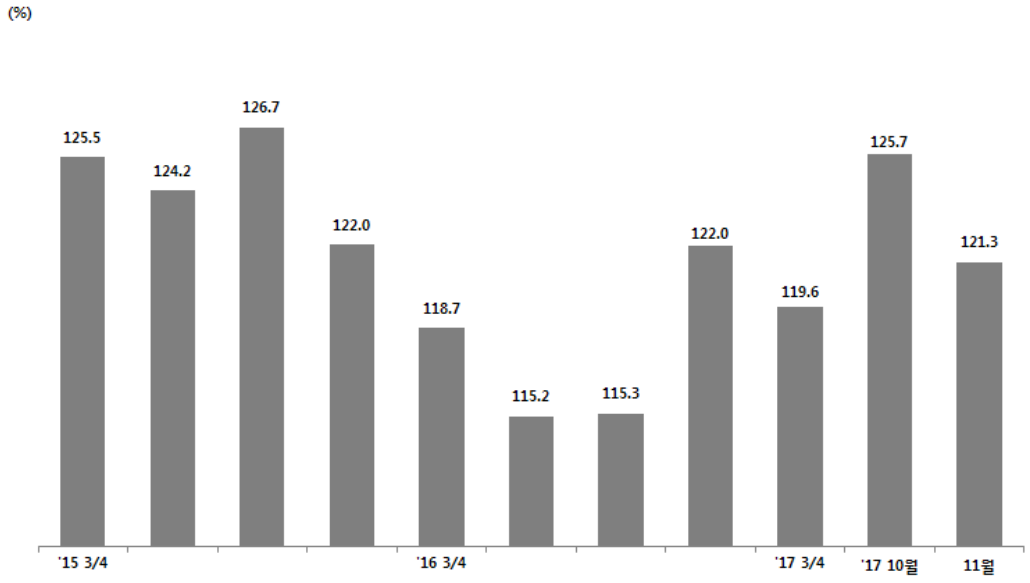
- 10월 제조업 출하는 석유정제,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1.4%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자동차, 식료품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1차금속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4.3% 증가함[70]

○ 11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4.4%p 하락한 121.3%를 나타냄

- 11월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1.8%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전자부품, 1차금속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석유정제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1.7% 감소함[71]

68)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69) 2017년 7~11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70) 통계청 보도자료(2017. 11. 30), "2017년 10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1)]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71) 통계청 보도자료(2017. 12. 28), "2017년 11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7년 4/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2.09%, 2.30%, 2.49%로 2017년 3/4분기(1.77%, 1.97%, 2.28%)보다 상승함
-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50%로 인상됨
- ○ 국고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국내 경제지표 개선 때문임

□ 2017년 4/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05.7원으로 전분기(1,132.2원)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497.37로 전분기(2,385.43)대비 상승함
- ○ 국내 경제지표 개선, 한-캐나다 통화스왑 체결 등으로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임
- ○ 국내 수출 증가,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등으로 종합주가지수는 상승세를 지속함

□ 2017년 4/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21,561.79으로 전분기(21,148.71)대비 상승하였고,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은 12.17로 전분기(11.97)대비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0.89로 전분기(0.91)대비 하락함

〈금리〉

■ 2017년 4/4분기 정책금리는 1.50%로 인상됨(〈표 33〉 참고)
- ○ 2017년 1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성장세 지속, 안정된 금융시장 상황, 주요국 교역여건 개선 가능성 등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함
- ○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의 상승세로 안정되는 가운데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의 정책방향,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 또한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 , 완만한 소비, 양호한 투자흐름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어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전망임

■ 2017년 4/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11bp 상승한 1.50%임(〈표 33〉 참고)
- ○ 10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38%, 11월과 12월은 각각 1.45%, 1.66%로 매월 상승세를 보임

■ 2017년 4/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각각 2.09%, 2.30%, 2.49%임(〈표 33〉 참고)

○ 10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국내 경제지표 개선[72]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1.79%, 1.99%, 2.29%)보다 상승한 2.03%, 2.25%, 2.46%를 기록함

○ 11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매입 취소[73] 등의 영향으로 10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2.15%, 2.36%, 2.54%를 나타냄

○ 12월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 약화 등으로 3년물 2.10%, 5년물 2.30%, 10년물 2.47%로 소폭 하락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6 4/4	2017 1/4	2017 2/4	2017 3/4	2017 4/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25	1.25	1.25	1.25	1.50	0.25	0.25
CD(91일)	1.44	1.49	1.40	1.39	1.50	0.11	0.06
국고채(3년)	1.55	1.67	1.68	1.77	2.09	0.32	0.54
국고채(5년)	1.67	1.86	1.88	1.97	2.30	0.33	0.63
국고채(10년)	1.91	2.17	2.20	2.28	2.49	0.21	0.58
회사채(3년, AA-)	1.99	2.15	2.21	2.31	2.64	0.33	0.65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4	0.48	0.53	0.54	0.55	0.01	0.11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각 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세제개편안[74] 확정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고)

○ 미국은 기준금리를 1.00~1.25%에서 1.25~1.50%으로, 영국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인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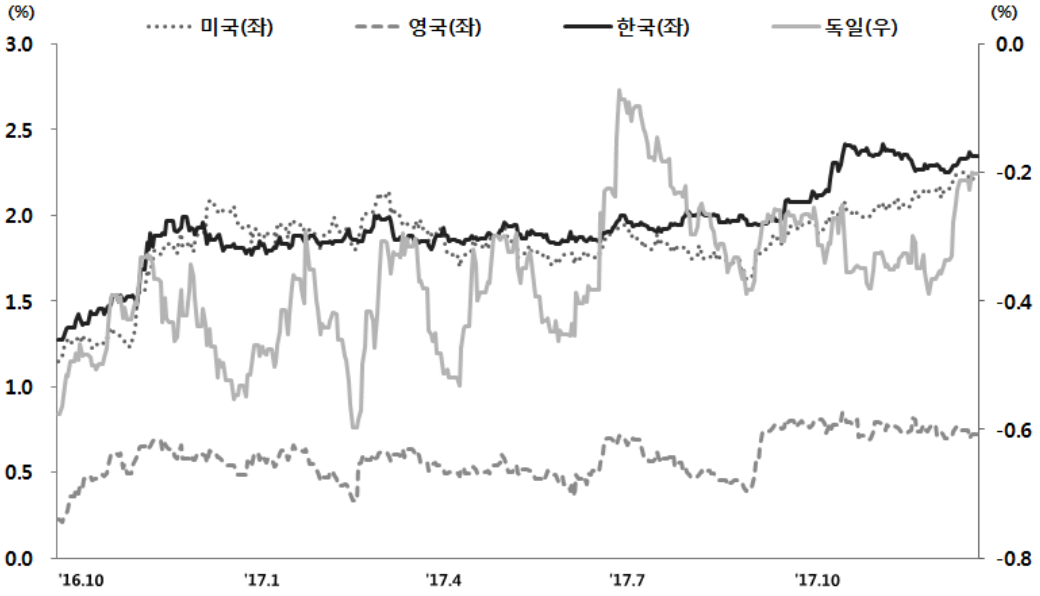
○ 미국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적자 확대 및 국채발행 증가, 경기 개선 기대 등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72) 2017년 3분기 성장률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 정부소비 및 건설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1.4%(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함. 부문별 성장률(전분기대비, %): 정부소비 2.3%, 수출 6.1%, 건설투자 1.5%

73) 기획재정부는 11월 15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입할 예정이었던 2018년 3월 만기 도래물 등 총 8개 국고채 매입을 취소하기로 11월 14일에 발표하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간 최고치를 기록함

74)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임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7년 4/4분기 평균 2.64%로 전분기대비 33bp 상승함(〈표 33〉 참고)

○ 10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57%, 11월과 12월은 각각 2.71%, 2.65%를 기록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1bp 확대된 평균 55bp임

〈환율〉

■ 2017년 4/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26.5원 하락한 평균 1,105.7원임(〈표 34〉 참고)

○ 10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의 세제개편안 발표 등 상승 요인이 있었으나, 국내 3/4분기 경제성장률 상승 및 한-중 통화 스와프 만기 연장 합의 등의 하락 요인으로 전월과 동일한 1,131.6원임

○ 1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경상수지 흑자 확대,[75] 한-캐나다 통화스왑 체결[76] 등으로 최저치[77]를 기록하면서 10월보다 26.6원 하락한 1,105.0원을 기록함

75) 9월 경상수지(122.1억 달러)는 서비스수지(-29.0억 달러)의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전년동기대비 25.5%) 급증에 따른 상품수지(150.1억 달러) 증가 등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함

76) 만기와 한도를 사전에 정해놓지 않는 상설 통화스왑으로 한국은 이런 통화스왑을 체결한 것은 처음임.

○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달러화 약세 속에 수출업체의 네고물량 유입,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하락[78]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확대되며 1,085.8원을 기록함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6	2017						
	4/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57.4	1,154.3	1,129.4	1,132.2	1,105.7	1,131.6	1,105.0	1,085.8
엔/달러	109.5	113.7	111.0	111.0	112.9	113.0	112.9	113.0
달러/유로	1.078	1.065	1.101	1.175	1.177	1.177	1.173	1.183
위안/달러	6.833	6.889	6.862	6.671	6.613	6.627	6.623	6.590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Bloomberg

■ 2017년 4/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전분기대비 0.06위안 하락한 평균 6.613위안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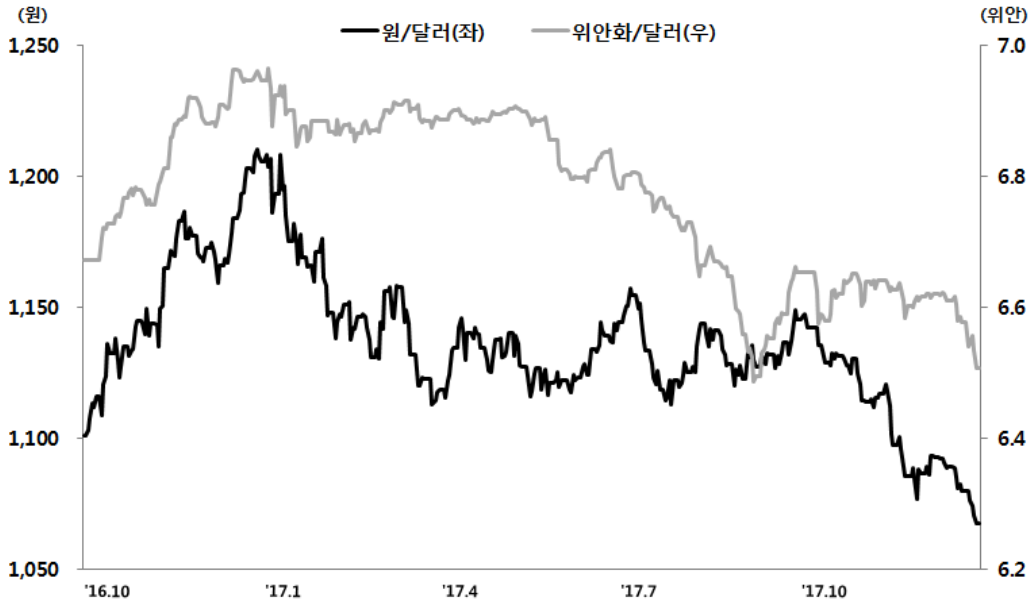
○ 중국 경기회복과 달러 약세로 최근 위안화 강세가 계속 되면서 원화 역시 강세를 보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4〉 참고)

통화스왑 규모와 만기는 필요 시 양국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됨

77) 11월 29일 종가는 1,076.8원으로 '15.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78) 한국 CDS는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9월 중 76bp이었으나, 최근 12월에는 53bp로 하락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7년 4/4분기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강세,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임(〈표 34〉 참고)

○ 10월 엔/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일본 총선에서의 여당 승리로 인한 아베노믹스의 지속 추진 가능성 등으로 전월대비 상승한 113.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카탈루냐 독립 사태,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79] 등으로 하락하여 1.177달러를 기록함

○ 11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액 축소, 달러화 강세 완화로 전월대비 하락한 112.9엔을,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로존 물가상승률 둔화,[80] 유럽경제 경기회복 기대[81] 영향 등으로 1.173달러를 나타냄

○ 12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BOJ의 통화정책 유지,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여 113.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82]으로 전월보다 상승한 1.183달러를 기록함

79) 10월 26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 자산매입규모는 월 6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로 축소하지만, 기한은 2017년 12월에서 2018년 9월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또한 추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함
80)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대비 1.4% 상승
81) 유로존의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와 2.1%로 상향
82) 유로존 10월 실업률은 8.8%로 이는 2009년 1월 이후 최저치이며, 12월 유로존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60.6을 기록하여 통계작성년도(1997년) 이래 최고치임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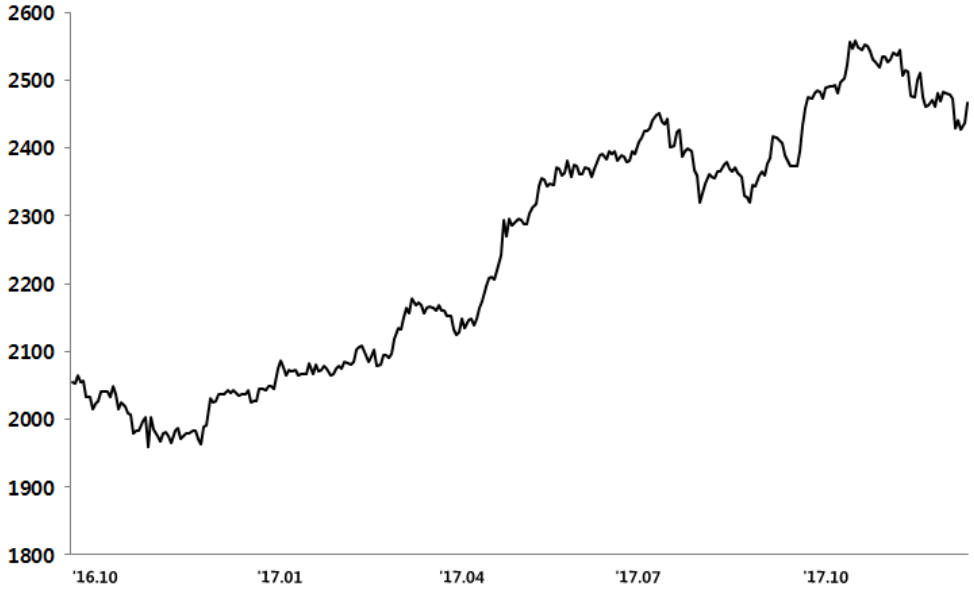
■ 2017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385.43보다 상승한 평균 2,497.37임(〈그림 5〉 참고)

○ 10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국내 수출 증가 및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 미국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평균주가지수 2,371.84보다 상승한 2,482.87을 나타냄

○ 1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533.51로 삼성전자의 배당확대 발표, 한 · 중 관계 개선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10월에 비해 상승함

○ 1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467.73으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우려, 외국인 순매도[83]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함

〈그림 5〉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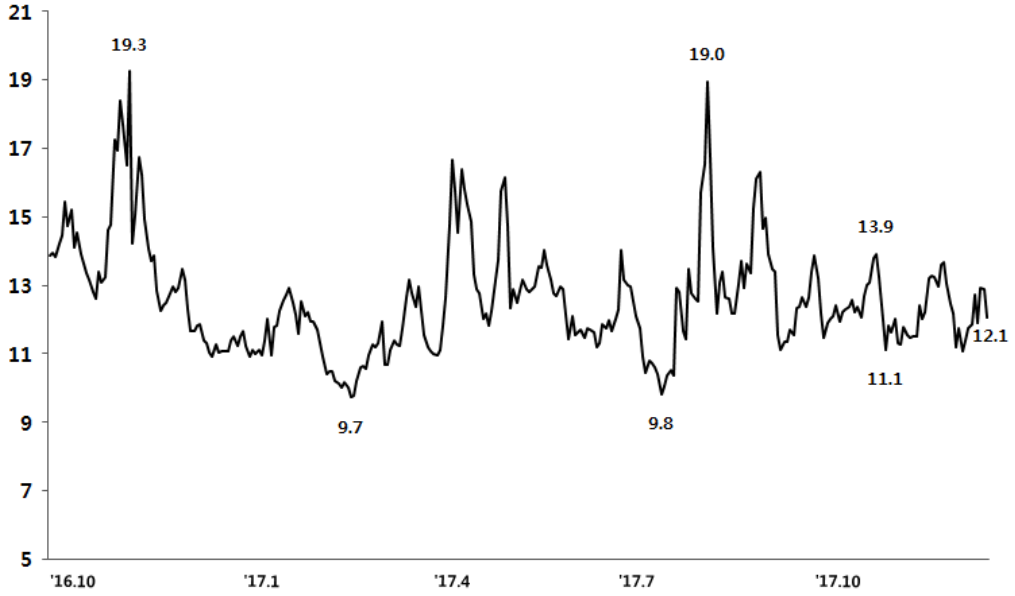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83) 2017년 12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도는 약 1조 7,500억 원임

■ 2017년 4/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종합주가지수 상승세와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상승·하락을 반복하고 있음(〈그림 6〉 참고)

○ 11월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7년 4/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21,148.71보다 다소 상승한 21,561.79임(〈그림 7〉 참고)

○ 실손보험료 인하 우려 등 하락요인이 있었으나, 기준금리 인상 및 장기채 금리 상승 등의 상승요인에 의해 보험지수가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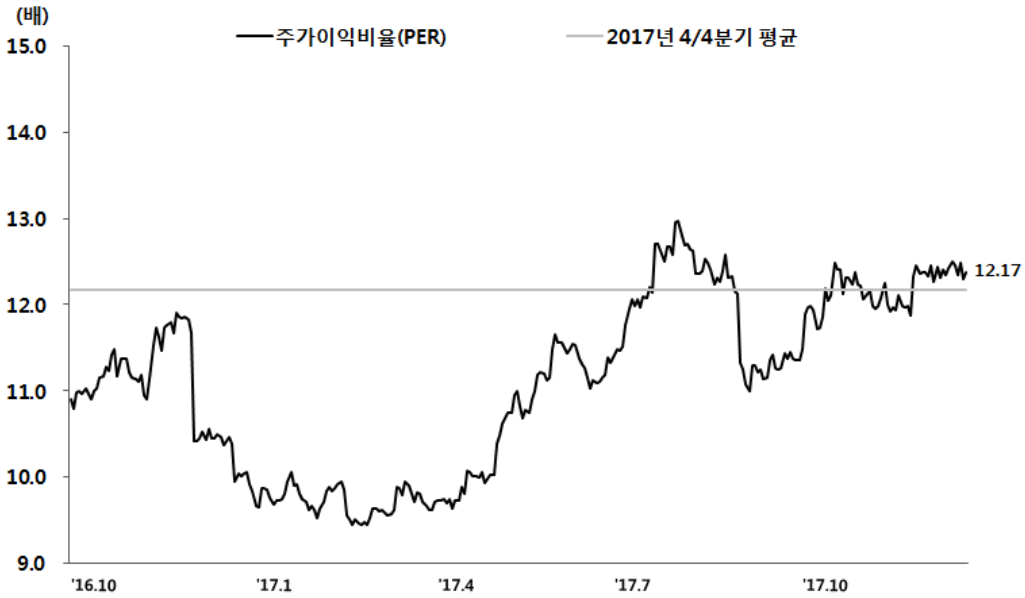
〈그림 7〉 KOSPI 보험지수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4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5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7년 4/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비율(PER)은 12.17로 전분기 평균 11.97에 비하여 상승한 반면, 주가자산비율(PBR)은 0.89로 전분기 평균인 0.91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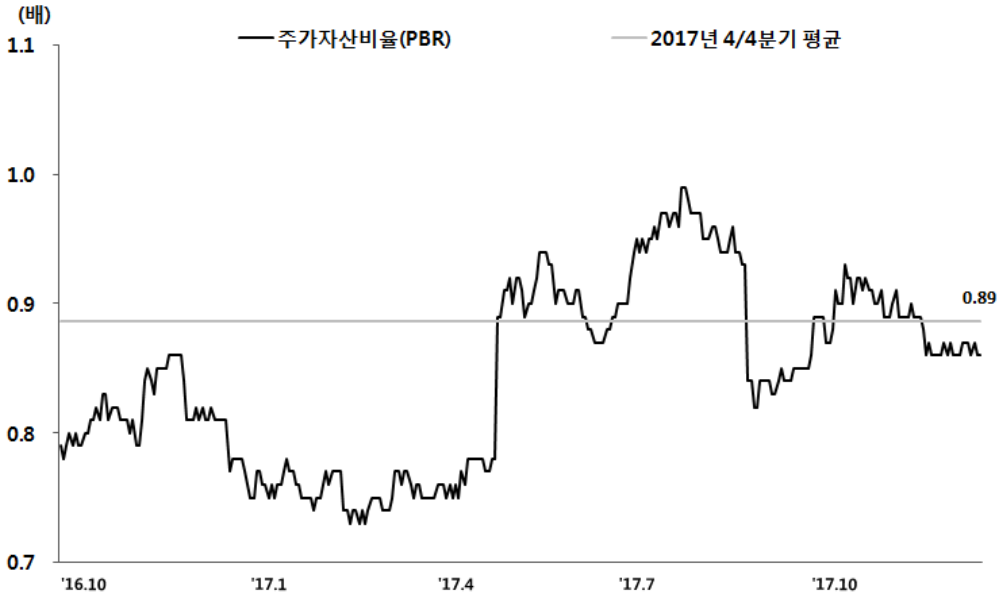
○ 주가이익비율(PER)은 당기순이익 감소로 상승하였으며, 주가자산비율(PBR)은 자본 증가로 하락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7년 4/4분기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7년 4/4분기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